



장려상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변화 궤적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검증

| 임예림 |

본 논문 내용은 저자의 견해이며, 통계청 및 통계개발원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변화 궤적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검증

임예림*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성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특성, 가정, 학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기의 7-9차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진로 결정성 변화 궤적의 유형은 저수준 증가(6.1%), 중수준 증가(65.8%), 고수준 유지(28.0%)의 3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 특성 요인으로는 성취동기 및 이중문화 수용태도, 가정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 학교 요인으로는 학업 적응과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성 중수준 증가/고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같은 발달 시기에 있는 개인이라도 이질적인 진로 발달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개인별 진로 발달 수준에 맞는 세분화된 진로 교육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영향요인 검증 결과에 기반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위해 가정, 학교,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고등학생, 진로 결정성, 종단분석, 성장혼합모형,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APS) 1기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진로의 문제는 생애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의사결정과 연관된 중요한 사건들의 집합체이다(김지연, 이윤희, 2019). Super(1957)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14-24세)는 구체적인 진로영역에 대해 인지하고 특정한 역량을 강화하며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탐색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놓인 청소년은 성장기에 축적한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직업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다양한 진로의 탐색과 선택에 수반되는 준비는 이후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이효경, 이순희, 손은령, 2018; 조아라, 양은주, 윤성근, 2013), 주요 학업 동기로서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학교 적응을 견인한다(정윤경, 이지수, 안현선, 2017). 청소년은 이를 통해 자아개념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심리적 안녕감을 획득하기도 한다(Havighurst, 1974; Zulkarnain & Amin, 2013). 반면 불안정한 진로 결정은 높은 학교 중퇴율과 낮은 상급학교 진학률, 비행률 증가 등 다양한 부적응 현상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순규, 2011a; 김미숙 외, 2011; 남영옥, 2012). 즉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181,178명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3.5%에 달한다. 만 18세 미만 다문화 가정 자녀 규모는 2007년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18세 미만 다문화 아동 중 과반 이상이 학령기 아동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청소년층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가족부, 2022). 이처럼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 지원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2021년 전국 다문화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또래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 체험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특히 15~24세 자녀들에게서 두드러졌다(여성가족부, 2022). 또한 18~24세의 다문화청소년들이 고민으로 꼽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43.0%)을 보인 것이 진로/진학 및 직업에 대한 고민이었다. 고등학교 시기가 성인기로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들 또한 이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심과 수요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은 대체로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진로발달 의식 수준이 낮고, 진로 관련 정보수집과 탐색 과정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정미경, 2014; 남부현, 최충옥, 2012; 장임숙, 김희재, 2014; 조봉환, 2011). 이들은 차별이나 문화 충격 등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데, 특히 진로장벽 중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양계민 외, 2016).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모호하거나 낮은 직업포부를 보인다(김영은, 정철영, 이진남, 2012; 임경희, 2013; 장임숙, 김희재, 2014)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밝힌 기존 연구들은 2010년대 중반까지 많이 이루어졌으며, 김지연과 이윤희의 동향 연구(2019)에 따르면 2019년까지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연구의 약 20.8%가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 집단 자체의 고유 특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기보다는,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지연, 이윤희, 2019).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가진 특수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진로태도, 진로장벽 등 진로 관련 개념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김민수, 하수경, 2022; 이종훈, 김주섭, 2022;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조은정, 2022; 하여진, 2021)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대부분 횡단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진로발달의 개념이 한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꾸준히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진로발달의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이 동일한 진로발달 상태에서 출발하였더라도 개인마다 진로발달의 변화 속도 및 양상은 상이할 수 있다. 즉 특정 시기에 유사한 정도의 진로발달을 보이는 집단도 서로 다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김혜경, 어윤경, 2021; 박정심, 박수원, 이아람, 2022; 정나은, 김원영, 2020)이 소수 존재하나, 이들은 개인별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청소년 전체의 진로발달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진로발달의 양상을 보이는 하위집단을 파악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발달의 변화 양상이 상이한 집단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진로발달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진로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Lent, Steven, & Hackett., 1994)은 취약계층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에 활발하게 적용되는 이론으로, 진로 발달에 있어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환경적, 맥락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 요인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김명숙, 이미현, 2019; 남연주, 안상근, 2017; 오혜경, 고미숙, 202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지민, 오인수, 2013), 부모의 지지(연은모, 최효식, 2019; 장혜림, 이래혁, 2019),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이혜미, 김유미, 2019)의 영향력을 검증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경험하는 진로장벽(김태균, 2021;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이나 문화 적응스트레스(성윤희, 장은영, 2020; 전해숙 외, 2019)도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었는데, 이는 맥락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요인이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진 반면,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진로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미, 현안나, 2020; 김자경, 오혜정, 2014).

이밖에도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취동기(박동진, 김송미, 2020; 이혜미, 김유미, 2019),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정나은, 김원영, 2020; 하여진, 2021)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인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비(非)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의 진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김지연, 이윤희, 2019). 실제로 비(非)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 학습활동(노자은, 정미나, 2017), 진로활동(임효진 외, 2016), 진로에 대한 지원 수준 및 교사의 학생 이해도(장현진, 2019)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7-19세 다문화청소년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진로 발달의 종단적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 가정, 학교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진로 발달을 측정하는 요인으로는 진로 결정성을,

개인 특성 요인으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을, 가정 요인으로는 부모지지 및 부모와의 대화를, 학교 요인으로는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학업 적응,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여부 및 만족도를 포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변화 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계층의 수와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고등학교 시기 개인 특성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중 진로 결정성 변화 양상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 결정성

진로 결정성이란 진로의식발달의 하위요소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결정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이기학, 한종철, 1997). 청소년기의 진로의식발달은 진로성숙이라는 변인을 통해 자주 연구되었는데,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에서도 진로발달의 정도나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진로성숙도를 제시한다. 이러한 진로 성숙의 개념에는 진로 결정성, 진로 관여성, 진로 독립성, 진로 성향성, 진로 타협성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Crites & Savickas., 1996).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 결정성은 이기학과 한종철이 고안한 진로태도 측정도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당 측정도구는 Super와 Crites의 이론에 기반하여 진로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측면을 강조하는 구조론적 입장과 실제 진로 선택 시 진로 태도의 변화 및 발달 양상을 반영하며, 진로발달에 대한 구인을 우리나라 문화에 부합하도록 설정한 척도이다(이기학, 한종철, 1997).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있어 진로 결정성은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로, 자아에 대한 고민과 대인관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기개념의 형성은 진로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진로 결정이 성숙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이후 자아의 확립과 유지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불안정한 진로 결정은 높은 학교 중퇴율과 낮은 상급학교 진학률, 비행률 증가 등 다양한 부적응 현상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숙 외, 2011; 김순규, 2011a; 남영옥, 2012). 진로 발달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자아정체성과 같은 인지적,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변인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진로발달이 청소년기에 수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진로 결정성과 관련된 영향 요인 : 개인 특성 요인

다문화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취약한 발달적 단계에서 정체감을 형성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면서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기 쉽다(Berry & John, 2001; Dustmann & Christian, 1996).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의 하나는 그들이 주류 문화로서의 한국문화와 자신의 또다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타국 부모의 문화를 동시에 탐색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민경, 2014).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중문화 배경을 강점으로 삼아 진로 발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으나, 적응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이나 사회적 차별 등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될 경우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개념은 이중문화 수용태도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이 이중문화 배경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일수록 진로 장벽을 낮게 인식하고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김영미, 현안나, 2020; Holloway-Friesen & Holly, 2018) 진로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Rivera et al., 2007; Patel, Salahuddin, & O'Brien, 2008) 반면, 부정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진로 결정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전혜숙 외, 2019) 나타났다.

한편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은 적응적 행동의 예측요인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기저에는

인간의 심리적 기본 욕구인 관계성, 유능감, 자율성의 욕구가 위치한다(정나은, 김원영, 2020). 이러한 내적 동기는 외적 동기로부터 유발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획득된다. 여기서 내적 동기는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 내적 특성으로, 외적 동기는 부모의 지지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성취동기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끈기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이운경, 도현심, 2005), 성취동기가 높을 경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도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박동진, 김송미, 2020; 이창훈, 2021),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권혜경, 이희경, 2004).

성취동기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사회적 위축이 있다.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 사회적 위축은 선천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획득하는 발달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민원홍, 손선옥, 2017). 사회적 위축은 그 정의 자체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복잡한 대인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민감하게 발달할 수 있는 특질이며, 특히 사회문화적 위치에 있어 소수집단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과 진로 결정성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위축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 결정성이 높은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고(하여진, 2021). 사회적 위축은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의 관계를 부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수, 하수경, 2022).

3. 진로 결정성과 관련된 영향 요인 : 가정 요인

부모 관련 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미치는 부모 요인의 영향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장임숙, 김희재, 2014).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직업정보 탐색과 직업포부 등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최수미, 강유림, 2013)가 있고, 부모가 높은 지지-낮은 간섭과 관여부족을 보이는 집단의 경우 자녀의 진로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최효식, 2019).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고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일수록(이지민, 오인수, 2013), 부모의 지지와 지원이 높을수록(장혜림, 이래혁, 2019) 진로 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부의 방임형 양육태도는 진로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남연주, 안상근, 2017)는 결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머니가 주로 이주 배경을 지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언어와 문화 적응 문제, 지역사회와의 진로, 진학, 취업 관련 제도와 실태에 대한 정보 및 경험 부족,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네트워크 부족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외국인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관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강희경, 2019; 이병준, 석영미, 한현우,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개선이 쉽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보다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부모지지 및 부모와의 대화 빈도를 영향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4. 진로 결정성과 관련된 영향 요인 : 학교 요인

학교 요인 중 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으로는 학교의 지원이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내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 적응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김성경, 2015), 학생의 학교 참여도가 높을수록 진로 계획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존재한다(Perry & Justin, 2008). 또한 교사와의 높은 유대감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미란, 이지연, 2010), 교우관계는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이경희, 윤미현, 2011), 진로 결정성의 어려움과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laten & Baskin,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수업 및 학습에 대한 적응도를 나타내는 학업 적응을 영향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학교에서도 점차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교내 진로 프로그램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 효과를 탐색한 최윤정(2012)의 연구에서는 교내 진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진로 발달 변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비(非)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 연구들에서도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김경식, 이현철, 2012;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어윤경, 변정현, 2013; 허균, 2010). 다만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 참여 자체가 진로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오은연, 2014)가 있는 반면, 단순 참여 시간이 아니라 활동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장희선, 윤정이, 2016)도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여부 및 만족도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MAPS는 201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2019년까지 총 9개년에 걸쳐 추적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패널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조사되는 자료이며, 종단자료로 설계되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연구 대상이 17세인 7차연도(2017년)부터 19세인 9차연도(2019년)까지의 자료이며, 최종 분석 대상으로 7-9차연도 진로 결정성 문항에 모두 응답한 1,13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의 경우 남성 49.1%(559명), 여성 50.9%(579명), 거주지역은 수도권 34.8%(396명), 비수도권 65.2%(742명), 아버지가 외국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0%(34명), 어머니가 외국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6.5%(1,098명),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0.5%(4명)였다.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35.0%, 398명), 필리핀(26.3%, 299명), 중국(조선족)(17.4%, 198명), 중국(한족, 기타민족)(6.9%, 79명), 기타(5.1%, 58명) 순으로, 아버지의 국적은 한국(92.5%, 1,053명), 일본(16명, 1.4%), 기타(1.1%, 1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진로 결정성

진로 결정성은 이기학과 한종철이 개발한 진로 태도 척도(1997)의 하위 영역 중 '진로 결정성'을 발췌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에서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은 동일하게 4문항으로 측정되었고,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항과 네 번째 문항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진로 결정성 문항 내용 및 신뢰도

문항 내용	신뢰도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역코딩)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	7차연도 .824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8차연도 .833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역코딩)	9차연도 .823

2) 영향 요인

다문화청소년 진로 결정성의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은 7차연도 자료에서 선정하였다. 개인 특성 요인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을 활용하였으며, 가정 요인으로는 부모의 지지, 부모와의 대화 빈도를, 학교 요인으로는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학업 적응,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빈도와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빈도는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12개 문항에 '예'(1)라고 응답한 빈도의 총합을 구하여 사용했으며, 만족도는 5점 척도(1점=매우 불만족, 2점=불만족하는 편, 3점=보통, 4점=만족하는 편, 5점=매우 만족)로 측정된 12개 문항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이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내용과 척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은 모두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 7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Kline, 2016).

〈표 2〉 개인 특성, 가정, 학교 요인 문항 내용

분류	요인	문항내용	척도
개인 특성 요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Likert 4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성취동기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사회적 위축	성취동기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나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한다	
		나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나는 수줍어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분류	요인	문항내용	척도
가정 요인	부모님의 지지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Likert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중간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 고민을 들어 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게 용돈을 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	
	부모님과 대화 빈도	학교생활(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1=전혀 하지 않음, 2=일년에 1-2회, 3=한 학기에 1-2회, 4=한달에 1-2회, 5=일주일에 1-2회, 6=일주일에 3회 이상
		나의 흥미와 적성	
		나의 미래 직업(꿈, 희망직업)	
		학교 및 학과 선택(대학)	
학교 요인	교우관계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Likert 4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중간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준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과 방과 후에도 어울린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교사관계	학교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선생님이 있다	Likert 4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중간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학업 적응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	Likert 4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중간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생님이 내주신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511**												
3	.406**	.555**											
4	.192**	.176**	.138**										
5	.404**	.337**	.240**	.300**									
6	-.131**	-.156**	-.123**	-.005	-.266**								
7	.191**	.211**	.152**	.438**	.373**	-.205**							
8	.182**	.177**	.120**	.308**	.298**	-.092**	.458**						
9	.222**	.215**	.176**	.306**	.396**	-.268**	.392**	.234**					
10	.210**	.187**	.149**	.308**	.366**	-.181**	.451**	.226**	.512**				
11	.265**	.244**	.240**	.278**	.554**	-.262**	.403**	.220**	.425**	.431**			
12	.096**	.104**	.106**	.076**	.091**	-.0013	.05	.191**	.126**	.135**	.149**		
13	.240**	.187**	.143**	.294**	.343**	-.096**	.340**	.180**	.350**	.416**	.331**	.232**	
M	2.71	2.72	2.85	2.91	3.03	2.39	3.90	3.75	4.02	3.86	3.47	3.79	3.58
SD	0.67	0.68	0.66	0.39	0.44	0.73	0.67	1.18	0.70	0.73	0.76	1.83	0.53
왜도	0.03	0.04	-0.09	0.30	-0.05	-0.20	-0.22	-0.18	-0.41	-0.36	-0.38	0.48	-0.13
첨도	-0.39	-0.34	-0.25	0.50	1.33	-0.39	-0.08	-0.37	0.01	0.20	0.59	0.19	0.80

* $p < .05$, ** $p < .01$, 1-3: 진로 결정성 7-9차, 4: 이중문화 수용태도, 5: 성취동기, 6: 사회적 위축, 7: 부모지지, 8: 부모와의 대화 빈도, 9: 교우관계, 10: 교사관계, 11: 학업 적응, 12: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 빈도, 13: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4-13: 7차 자료 활용)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진로 결정성 변화의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적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변화 궤적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잠재계층(Latent Class) 집단 별로 상이한 성장요인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Muthén & Muthén, 2000; Jung & Wickrama, 2008).

본 연구는 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일차함수모형을 적용하여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으며, 잠재계층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분류 계층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잠재계층 분류를 위한 정보준거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를 이용하였다. 각 정보준거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IC = -2\ln(L) +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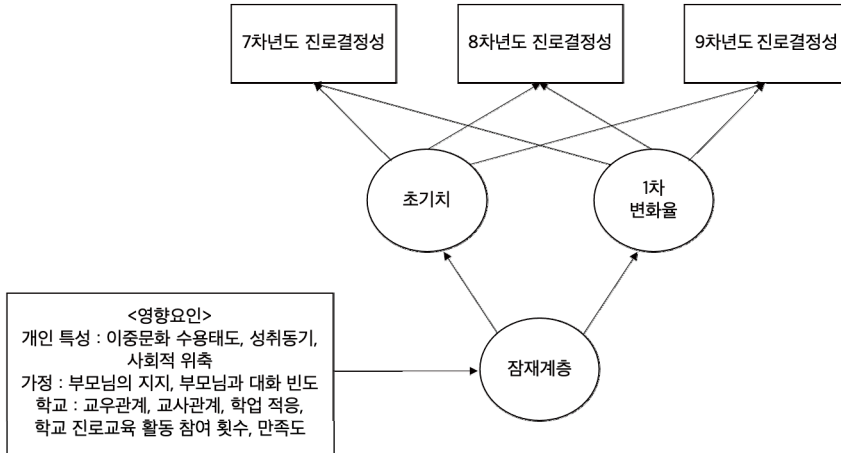
$$BIC = -2\ln(L) + p[\ln(n)]$$

위의 식에서 $\ln(L)$ 은 우도(likelihood)의 로그값, p 는 모수의 개수,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며, 각 정보준거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o et al., 2001) 및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Peel & McLachlan, 2000)를 활용하였다. LMR-LRT와 BLRT는 잠재계층이 k 개인 모형과 $k-1$ 개인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 및 검증하는 방법으로, k 개 잠재계층 모형에서 BLRT 검정의 p -value가 유의하다면, 잠재계층이 $k-1$ 개인 모형보다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한다(Lo et al., 2001). 마지막으로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엔트로피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Clark, 2010), 0.6 이하이면 잠재계층 분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Muthén, 2004). 이외에도 해석 가능성과 계층별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검증을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잠재계층과 영향요인을 동시에 추정하는 1단계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잠재계층의 개수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Nylund-Gibson et al. 2014). 따라서 개인별로 할당된 잠재계층을 먼저 고정하고, 이후 분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영향요인의 효과를 추정하는 편향 보정된 3단계 접근법(bias-adjusted three-step approach)을 이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결측치 처리를 위해 MLR(Maximum Likelihood Esti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을 이용하였고, Mplus 8.3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1. 잠재계층 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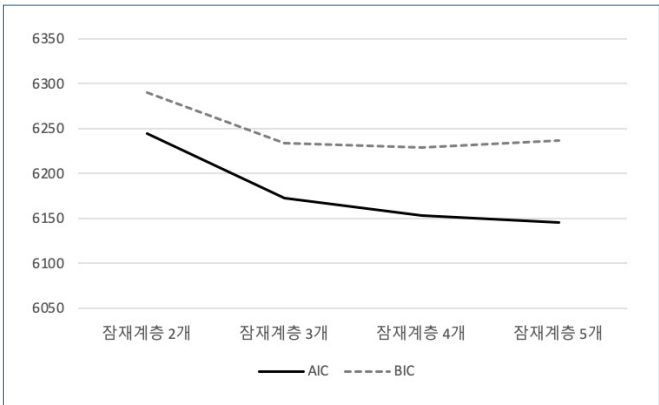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 진로 결정성 변화 궤적에 따른 최적의 잠재계층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기반으로 일차함수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변화율의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최적의 잠재계층 수 도출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각 잠재계층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을 모두 다르게 추정한 결과, 추정실패가 발생하였다. 성장혼합모형에서 추정실패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실패가 발생한 경우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추정하는 모수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Ram & Grimm,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치의 분산을 0으로 제약하고, 변화율의 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모형을 기반으로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 및 모형 비교검증을 위한 수치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 및 집단별 비율

계층 수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 비교 검증		각 잠재계층 비율(%)				
	AIC	BIC	Entropy	LMR-LRT	BLRT	계층1	계층2	계층3	계층4	계층5
2	6244.702	6290.035	0.602	<0.001	<0.001	0.602	0.398			
3	6172.997	6233.441	0.692	0.005	<0.001	0.083	0.620	0.296		
4	6153.310	6228.865	0.684	0.130	<0.001	0.183	0.040	0.403	0.374	
5	6145.756	6236.422	0.640	0.430	<0.001	0.043	0.412	0.162	0.317	0.066

정보지수 중 AIC는 잠재계층 수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BIC는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경우 가장 작게 나타났다. 두 정보지수 모두 잠재계층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때 가장 감소폭이 컸는데(〈그림 2〉참고), 정보지수가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elbow’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이 잠재계층 수의 선정 근거가 될 수 있다(Nylund et al., 2007). LMR-LRT는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경우부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BLRT는 모든 잠재계층 개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류의 질(Entropy)은 대체로 중간 수준(0.6 이상)으로 나타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는 통계적 수치와 각 계층에 할당된 개인의 비율, 변화 궤적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3개로 설정하였다.

〈그림 2〉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2. 다문화청소년 진로 결정성 변화 잠재계층별 특징

최종적으로 설정한 3개 잠재계층에 해당되는 인원을 사후 확률에 기반하여 분류했으며, 각 잠재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치 및 변화율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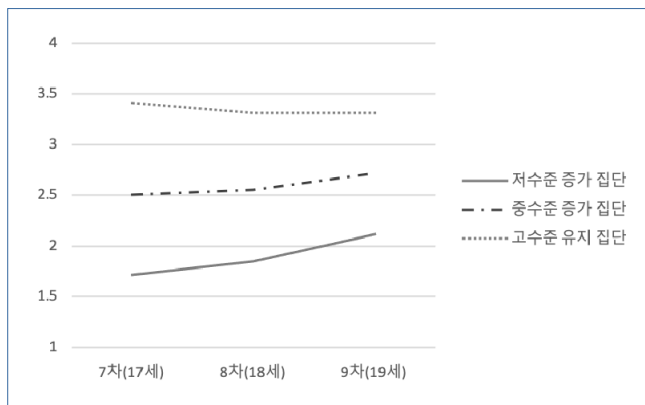
<표 5> 잠재계층 별 분류 비율 및 추정치

잠재계층	인원	분류비율(%)	모수	평균	표준오차
계층1 저수준 증가 집단	70	6.1	초기치	1.69***	0.184
			변화율	.208**	0.067
계층2 중수준 증가 집단	749	65.8	초기치	2.488***	0.071
			변화율	.110***	0.017
계층3 고수준 유지 집단	319	28.0	초기치	3.387***	0.075
			변화율	-.042	0.039

** $p < .01$, *** $p < .001$

각 잠재계층 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첫 번째 계층은 초기치가 가장 낮으나, 변화율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저수준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6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며 약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유의하여 ‘중수준 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28.0%로 초기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수준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잠재계층의 3개년 간 변화 궤적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잠재계층별 추정된 변화 궤적



3. 다문화청소년 진로 결정성 변화 잠재계층 영향요인

편향 보정된 3단계 접근법(bias-adjusted three-step approach)을 적용하여 잠재계층 분류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계수는 로지스틱 회귀계수 값이며, 0보다 큰 경우 영향요인 값이 클수록 기준집단 대비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0보다 작은 경우 영향요인 값이 클수록 비교집단 대비 기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저수준 증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성취동기, 부모와의 대화 빈도, 학업 적응이 높을수록 저수준 증가 집단보다 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교우관계는 점수가 높을수록 중수준 증가 집단보다 저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저수준 증가 집단 대비 고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취동기, 부모와의 대화 빈도,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수준 증가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 성취동기, 교우관계가 높을수록 고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적 위축, 부모지지, 교사관계 및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빈도는 모든 잠재계층 비교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6> 잠재계층 영향요인 검증 결과

기준집단 비교집단	저수준 증가				중수준 증가	
	중수준 증가		고수준 유지		고수준 유지	
영향요인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이중문화 수용태도	-0.675	0.362	-0.132	0.395	0.543*	0.232
성취동기	1.065*	0.413	2.570***	0.450	1.504***	0.243
사회적 위축	-0.351	0.209	-0.358	0.225	-0.007	0.113
부모지지	-0.351	0.262	-0.138	0.291	0.213	0.165
부모와의 대화 빈도	0.397**	0.126	0.383**	0.136	-0.014	0.859
교우관계	-0.526*	0.221	-0.086	0.248	0.441**	0.148
교사관계	0.124	0.226	0.027	0.245	-0.097	0.141
학업 적응	0.597*	0.234	0.473	0.250	-0.124	0.128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빈도	0.054	0.049	0.097	0.052	0.042	0.027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0.326	0.226	0.564*	0.248	0.239	0.138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성 변화 궤적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는 잠재계층을 밝히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특성, 가정, 학교 요인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진로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진로 결정성 변화 궤적을 유형화한 결과 잠재계층은 저수준 증가 집단(6.1%), 중수준 증가 집단(65.8%), 고수준 유지 집단(28.0%)의 3개로 분류되었다. 저수준 증가 집단과 중수준 증가 집단은 초기치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변화율의 계수가 양수로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다소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고수준 유지 집단은 높은 초기치를 보였으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아 초기의 높은 진로 결정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결정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연속적인 개념이며, 발달적으로 유사한 시기에 있는 개인들도 서로 다른 진로 발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진로 결정성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개인 특성 요인으로는 성취동기 및 이중문화 수용태도, 가정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 학교 요인으로는 학업 적응 및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성 초기치가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 특성 요인 중 성취동기는 모든 잠재계층 비교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성 및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권혜경, 이희경, 2004; 박동진, 김송미, 2020; 이창훈, 2021)와 일치한다. 성취동기가 청소년의 자기결정성(Deci & Ryan, 2000)의 기저에 위치한 일종의 내적동기로 기능한다는 점(정나은, 김원영, 2020)을 고려하면,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진로 결정이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성숙한 진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인 특성 요인 중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저수준 증가-중수준 증가 계층 간 비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수준 증가-고수준 유지 계층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이중문화 배경에 수용적일수록 진로 장벽을 낮게 인식하는 반면(Holloway-Friesen & Holly, 2018), 비수용적일수록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전혜숙 외, 2019)를 뒷받침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주류 문화로서의 한국문화와 타국 부모의 문화를 함께 수용하는 데 성공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 발달에 있어 이중문화 배경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이중문화라는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하며,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 요인 중 부모지지는 잠재계층 비교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반면, 부모와의 대화 빈도는 저수준 증가 집단 대비 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를 구성하는 문항을 보면 자녀에 대한 이해 외에도 경제적, 정보적 지원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부모와의 대화는 학교 생활이나 자녀의 흥미와 적성, 삶의 가치관 등 자아실현 욕구에 대한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물질적 지원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정서적인 지원이 청소년 자녀의 진로 발달에 있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에서 물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다문화청소년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이해를 도모한다면, 진로 결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요인의 경우 학업 적응은 저수준 증가 집단 대비 중수준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적응을 잘 할수록 진로 결정성이 높은 집단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학생의 학교 참여도가 높을수록 진로 계획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Perry & Justin, 2008)와 맥을 같이한다. 학업 적응 문항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다는 점에서 학업 효능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업 효능감이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교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는 결과(고유미, 이정운, 2009)를 고려하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학교에서의 적응과 직결되고, 이는 곧 원활한 진로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우선적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 일정 수준 이상 선행되어야 진로 발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는 저수준 증가 집단 대비 고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교육 및 활동 빈도는 잠재계층 분류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상반된 논의 중 참여 자체가 아닌 활동의 만족도가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장희선, 윤정이, 201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적인 것을 넘어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에만 실질적인 진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의견조사와 개선 작업을 통해 질 높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요인 중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양분된 현상이 나타났는데, 교우관계가 높을수록 중수준 증가 집단 대비 저수준 증가 및 고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친구관계가 좋은 집단의 진로 결정성 양상이 양극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으로는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추후 연구에서 두 변인을 포함한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계층별 진로 결정성의 차이는 초기에 가장 컸다가, 저수준 증가 집단과 중수준 증가 집단의 진로 결정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함으로써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세 이후의 진로 결정성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포함하지 못했으나, 진로발달이 성인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발달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 19세 이후 다문화청소년 진로 결정성의 변화 양상까지 살펴본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우관계와 진로 결정성 변화 양상에 대한 명확한 매커니즘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초기 시점인 7차연도 변수만 사용이 가능하여 학교 요인 중 반이 바뀌거나 커리큘럼에 따라 매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의 8-9차연도 데이터를 영향요인에 포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에 대해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여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이질적인 유형이 존재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진로 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할 경우 개인의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진로발달과 관련된 환경적, 맥락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입각하여 진로 결정성 발달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특성, 가정, 학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가정, 학교 현장 및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희경(2019),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 진로 지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259-269.
- 고유미·이정윤(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 『Korea Journal』, 17(1): 49-63.
- 교육부(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 권혜경·이희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 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김경식·이현철(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과 한국청소년패널 (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4): 1079-1103.
- 김기현·유홍준·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 김명숙·이미현(2019), “다문화가정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2(1): 19-34.
- 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효진·성수미(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경(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문화적 요인, 부모 및 가족요인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동복지연구』, 12(3): 35-53.
- 김민수·하수경(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11: 81-107.
- 김민정·정미경(201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 비교 연구-경기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0(2): 265-291.
- 김성경(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1): 23-46.
- 김순규(2011a),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영미·현안나(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49: 311-338.
- 김영은·정철영·이건남(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직업인식, 진로대안영역 및 직업포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69-194.
- 김자경·오혜정(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3(1): 1-26.
- 김재철·황매향·김아영(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지연·이윤희(2019),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과 과제: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2009-2019,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1205-1230.
- 김태균(2021),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3): 1-19.
- 김혜경·어윤경(2021),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진로활동, 성별, 지역의 개인차 효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123-143.
- 남부현·최충옥(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117-137.
- 남연주·안상근(2017),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진로포부와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비교”, 『진로교육연구』, 30(4): 1-25.
- 남영옥(2012),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다문화교육연구』, 5(2): 173-191.
- 노자은·정미나(2017),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변화 양상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51-68.
- 민원홍·손선옥(2017),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대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75-99.

- 박동진·김송미(2020),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267-289.
- 박미란·이지연(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이해』, 31(1), 65-88.
- 박정심·박수원·이아람(2022),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성취동기 및 진로 결정성의 종단적 상호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95-115.
- 성윤희·장은영(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43-64.
- 양계민·윤민중·신현옥·최홍일(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6.
- 어윤경·변정현(2013),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따른 학업성취도, 학교폭력, 진로성숙도의 변화: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477-3498.
- 연은모·최효식(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21-140.
- 오은연(2014),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직업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혜경·고미숙(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 정보통계학회지』, 46(3): 285-292.
- 이경희·윤미현(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 175-199.
- 이기학·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병준·석영미·한현우(2015),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진로교육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55-477.
- 이아라·이주영·손보영(2018),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1):35-64.

- 이운경·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종훈·김주섭(2022), “다문화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장벽,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태도 준비성 간 구조관계”, 『인문사회 21』, 13(4): 2781-2794.
- 이지민·오인수(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4(3): 193-216.
- 이창훈(2021),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2): 271-289.
- 이혜미·김유미(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성취 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665-689.
- 이효경·이순희·손은령(2018),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동향: 국내 주요 상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621-641.
- 임경희(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여부와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와 진로흥미 및 진로인식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6(2): 67-89.
- 임효진·한지은·김정수·선혜연(2016), “청소년의 진로경험 및 부모지지가 진로성 숙도의 종단변화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상담학연구』, 17(5): 289-306.
- 장임숙·김희재(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 연구』, 60: 50-67.
- 장현진(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및 진로 활동 경험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32(3): 43-64.
- 장혜림·이래혁(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189-218.
- 장희선·윤정미(2016), “중학교 1 학년 학생의 직업체험활동, 생애목표가 진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271-292.
- 전혜숙·김진영·전종설(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259-290.

- 정나은·김원영(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영향 요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493-517.
- 정윤경·이지수·안현선(2017),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와 학업 참여 및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진로교육연구』, 30(3): 1-24.
- 조봉환(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진로교육연구』, 24(2): 219-245.
- 조아라·양은주·윤성근(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89-408.
- 조은정(2022),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2(2): 137-156.
- 최수미·강유림(2013), “부모지각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91-2306.
- 최윤정(2012),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의한 진로교육 개입 유형 탐색 및 유형별 성과 차이”, 『진로교육연구』, 25(2): 21-41.
- 최윤정 외(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하여진(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3(2): 1-22.
- 허균(2010),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을 적용한 진로경험 활동과 진로성숙도의 종단관계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157-170.
- Akaike and Hirotugu(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Berry and John W(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 Clark and Shaunna Lynn(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rites, John O., and Mark L. Savickas(1996),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131-138.

- Deci, Edward L., and Richard M. Ryan(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ustmann and Christian(1996), "The social assimilation of immigra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9(1): 37-54.
- Havighurst and Robert J(1974), "Youth in crisis." *The School Review*, 83(1): 5-10.
- Holloway-Friesen and Holly(2018), "Acculturation, enculturation, gender, and college environment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among Latino/a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5(2): 117-131.
- Jung, Tony, and Kandauda AS Wickrama(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line, R. B.(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urth; TD Little, Ed.)
- Lent, Robert W., Steven D. Brown, and Gail Hackett(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o, Yungtai, Nancy R. Mendell, and Donald B. Rubin(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uthén, Bengt, and Linda K. Muthén(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ylund, Karen L., Tihomir Asparouhov, and Bengt O. Muthén(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Nylund-Gibson, Karen, Ryan Grimm, Matt Quirk, and Michael Furlong(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 Patel, Sheetal G., Nazish M. Salahuddin, and Karen M. O'Brien(2008),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Vietnamese adolescents: The role of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socioeconomic status, and racism.”,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3): 218-240.
- Peel, David, and Geoffrey J. McLachlan(2000), “Robust mixture model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 339-348.
- Perry and Justin C(2008), “School engagement among urban youth of color: Criterion pattern effects of vocational exploration and raci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4): 397-422.
- Ram, Nilam, and Kevin J. Grimm(2009), “Methods and measures: Growth mixture modeling: A method for identifying differences in longitudinal change among unobserved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6): 565-576.
- Rivera, Lourdes M., Eric C. Chen, Lisa Y. Flores, Fran Blumberg, and Joseph G. Ponterotto(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role models, and acculturation on the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consideration of Hispanic wom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1): 47-61.
- Schwarz and Gideon(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 461-464.
- Slaten, Christopher D., and Thomas W. Baskin(2014) “Examining the impact of peer and family belongingnes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young adults: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1): 59-74.

Super and Donald E(1975), "Career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for the life span and for life role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2(2): 27-42.

Zulkarnain and Amin(2013), "The mediating effect of quality of work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psychology, 2(3).